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및 임금 실태 변화

김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고용은 경제적 자립과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저조하고 노동시장 내 지위가 낮다. 2021년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2.2%,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43.8%로, 약 21.6%p 차이가 났다(통계청, 2022).<sup>1)</sup>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남녀 차별 및 격차를 조사한 연구는 많으나, 여성 장애인에게 초점을 두고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격차 및 차별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장애인의 고용 및 임금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로 노동시장 내 남녀 장애인의 고용 및 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로 남녀 장애인의 고용률 및 임금 추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오톱카-블라인더(Oaxaca-Blinder) 분해분석을 통해 남녀 장애인 고용 및 임금 격차 및 격차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해서 2017~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sup>2)</sup>를 활용하였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매년 5~7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조사한 국가승인 통계로, 장애인의 취업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가장 대규모 국내 조사이다.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장애인경제활동상태-성별”에서 자료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 (2022.12.1. 접속)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자료 인출  
<https://edi.lead.or.kr/BoardType17.do?bid=35&mid=219> (2022.9.15. 접속)

## II.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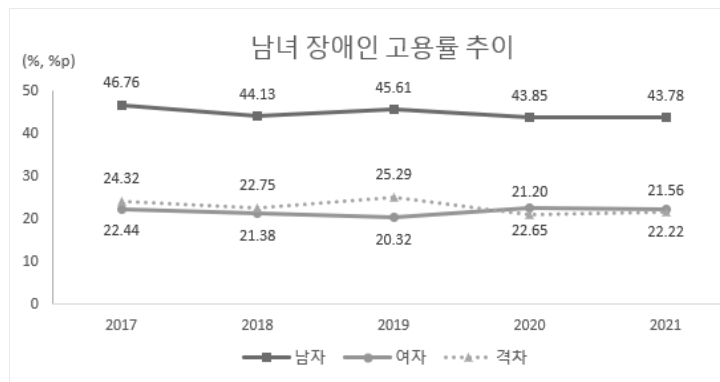
### 1. 남녀 장애인 고용률 추이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과 비교 코로나 이후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45.6%에서 2020년에 43.9%, 2021년 43.8%로 꾸준히 감소한 데 반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20.3%, 2020년 22.7%, 2021년 22.2%로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표 1〉 2017년~2021년 남녀 장애인 고용률 변화  
(단위: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6.52	34.53	34.91	34.86	34.63
남자	46.76	44.13	45.61	43.85	43.78
여자	22.44	21.38	20.32	22.65	22.22
격차 (남자-여자)	24.32	22.75	25.29	21.20	21.56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자료: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그림 1〉 2017~2021년 남녀 장애인 고용률 추이

장애 정도<sup>3)</sup>에 따른 남녀 장애인 고용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남녀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에 고용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보다 고용률이 더 증가하였다. 반면,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 장애인은 2019년 대비 코로나 이후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1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9년보다 고용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2〉 참조).

한편, 장애 유형<sup>4)</sup>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신체 장애인은 2019년 대비 코로나19 이후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여성 신체 장애인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하다가 2021년에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9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신 장애인의 경우 남녀 장애인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에 고용률이 감소했지만 2021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남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고 여성 장애인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2.7.12. 시행)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증 및 경증 장애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2022.6.22. 시행) 대분류 체계 규정에 따라, 신체 및 정신 장애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2〉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른 남녀 장애인 고용률 변화

(단위: %, %p)

유형		성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 정도	중증	전체	19.38	20.20	20.90	19.86	21.83
		남자	23.47	23.21	25.58	24.92	26.76
		여자	13.75	15.92	13.94	12.50	14.73
		격차(남자-여자)	9.72	7.29	11.64	12.42	12.03
	경증	전체	44.30	41.14	40.64	41.69	40.33
		남자	57.35	54.00	54.23	52.87	51.63
		여자	26.37	23.82	22.74	27.01	25.39
		격차(남자-여자)	30.98	30.18	31.49	25.86	26.24
장애 유형	신체	전체	38.88	36.41	36.69	37.06	36.34
		남자	49.95	46.84	48.76	46.73	46.10
		여자	23.64	22.03	20.67	24.02	23.08
		격차(남자-여자)	26.31	24.81	28.09	21.71	23.02
	정신	전체	18.66	20.61	21.79	18.71	22.33
		남자	22.53	23.60	24.46	23.20	27.00
		여자	13.38	16.70	17.36	12.35	16.03
		격차(남자-여자)	9.15	6.90	7.10	10.85	10.97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 2. 남녀 장애인 취업자 실태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취업자 실태를 살펴 보면,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더 높다. 2021년 여성 임금근로자 비율은 74.4%, 남성 임금근로자 비율은 67.5%였다. 2019년 대비 남성 장애인 임금근로자 비율은

약 2%p, 여성 장애인 임금근로자 비율은 약 1%p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실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높으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2021년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82.5%,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61.8%였다. 2019년과 비교하여 여성 비정규직

〈표 3〉 근로 형태에 따른 취업자 실태(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임금근로자	65.56	67.67	71.18	69.51	69.36
	비임금근로자	34.44	32.33	28.82	30.49	30.64
남자	임금근로자	64.58	66.91	69.78	67.79	67.47
	비임금근로자	35.42	33.09	30.22	32.21	32.53
여자	임금근로자	68.38	69.84	75.47	74.06	74.39
	비임금근로자	31.62	30.16	24.53	25.94	25.61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비율은 약 1%p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약 10%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시간 형태를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은 전일제 비율이 더 높은 데 반해 여성 장애인은 시간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남성 장애인의 전일제 비율은 70.2%인 반면 여성은 41.6%였다. 2019년과 비교 남성 전일제 비율은 약 5%p 감소한 반면, 여성 전일제 비율은 오히려 약 3%p

〈표 4〉 임금근로자: 남녀 장애인 취업자 실태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종사상 지위	전체	비정규직	59.43	59.40	59.98	59.42	67.84
		정규직	40.57	40.60	40.02	40.58	32.16
	남자	비정규직	55.32	54.30	51.60	51.49	61.78
		정규직	44.68	45.70	48.40	48.51	38.22
	여자	비정규직	70.54	73.21	83.71	78.48	82.53
		정규직	29.46	26.79	16.29	21.52	17.47
근로 시간 형태	전체	전일제	68.12	66.82	65.29	63.09	61.85
		시간제	31.88	33.18	34.71	36.91	38.15
	남자	전일제	75.11	74.69	74.81	73.22	70.22
		시간제	24.89	25.31	25.19	26.78	29.78
	여자	전일제	49.21	45.47	38.37	38.71	41.57
		시간제	50.79	54.53	61.63	61.29	58.43
사업체 종류	전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4.38	3.97	4.04	3.15	4.23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0.89	10.26	13.48	14.30	18.60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7.83	8.71	10.90	12.40	8.86
		그 외 일반사업체	76.90	77.06	71.58	70.14	68.31
	남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3.68	3.49	3.88	3.09	4.34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7.12	6.34	7.80	8.92	13.2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6.03	8.46	10.71	11.99	9.19
		그 외 일반사업체	83.17	81.70	77.61	76.00	73.24
	여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6.28	5.27	4.49	3.32	3.95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21.10	20.86	29.56	27.24	31.6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12.69	9.39	11.45	13.39	8.04
		그 외 일반사업체	59.93	64.48	54.51	56.05	56.38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 근무사업체 유형을 살펴 보면, 남성 장애인의 대다수 73~83%는 일반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반면, 여성 장애인도 그보다 적은 약 55~64%가 일반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 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업재활시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성 장애인 비중은 26.8%, 여성 장애인 비중은 43.6%였다. 2019년과 비교 남성 장애인은 4%p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2%p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 실태를 살펴본 결과, 남녀 장애인 모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으나, 여성 장애인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남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79.3%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6.7%), '무급가족종사자'(4.0%) 순이었다. 반면, 여성 비임금근로

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4.7%), '무급가족종사자'(37.8%) 그리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7.5%)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여 남성 장애인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약 5%p 감소했으며, 비슷한 규모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약 7%p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 장애인의 경우 2019년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약 9%p 감소했고 비슷한 규모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약 10%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녀 장애인 취업 산업을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은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 장애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1년 남성이 가장 많이 근무한 산업은 '제조업'(16.8%)이었고, 그다음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3.2%),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11.6%)였다. 반면, 여성 장애인이 가장 많이 근무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2%)이었고, 그다

〈표 5〉 비임금근로자: 남녀 장애인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실태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1.07	18.60	20.57	21.15	14.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8.38	67.51	69.19	67.91	73.72
	무급가족종사자	10.55	13.89	10.24	10.94	11.67
남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3.92	20.20	21.79	22.37	16.7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2.11	71.68	72.61	72.70	79.31
	무급가족종사자	3.97	8.12	5.60	4.93	3.98
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91	13.63	16.01	17.14	7.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40	54.57	56.27	52.30	54.73
	무급가족종사자	31.69	31.80	27.72	30.56	37.78

주: '장애인경제활용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표 6〉 산업분류에 따른 취업자 실태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3.80	13.26	10.73	12.66	12.65
	제조업	15.25	16.64	15.27	15.86	13.72
	건설업	9.81	8.56	9.68	7.09	8.34
	도매 및 소매업	9.73	9.82	10.09	8.63	7.59
	운수 및 창고업	5.96	5.83	6.53	6.12	7.11
	숙박 및 음식점업	5.88	4.88	5.13	5.03	4.2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01	6.07	5.43	5.93	5.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74	6.51	7.27	10.05	8.11
	교육서비스업	2.92	3.65	4.05	3.21	3.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1	10.45	11.53	10.99	12.6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78	12.03	11.92	12.76	12.84
	기타	2.12	2.30	2.37	1.67	3.06
남자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2.75	12.46	10.71	12.92	11.64
	제조업	16.95	18.67	18.17	18.64	16.81
	건설업	12.92	11.41	12.60	9.47	10.87
	도매 및 소매업	10.19	9.16	10.18	8.70	7.20
	운수 및 창고업	7.81	7.77	8.21	7.95	9.54
	숙박 및 음식점업	4.32	3.52	3.60	3.92	3.6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11	5.99	5.36	5.97	5.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14	5.76	5.99	7.34	6.57
	교육서비스업	2.13	2.54	3.30	3.09	3.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7	7.54	7.12	7.23	8.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61	12.73	12.66	13.10	13.17
	기타	2.19	2.44	2.11	1.69	2.89
여자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6.82	15.53	10.80	11.96	15.35
	제조업	10.35	10.91	6.39	8.53	5.44
	건설업	0.87	0.48	0.74	0.82	1.58
	도매 및 소매업	8.43	11.67	9.84	8.45	8.63
	운수 및 창고업	0.64	0.31	1.37	1.31	0.61
	숙박 및 음식점업	10.35	8.74	9.83	7.96	6.0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72	6.30	5.64	5.84	5.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31	8.64	11.20	17.22	12.26
	교육서비스업	5.20	6.80	6.38	3.52	5.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00	18.66	25.01	20.90	23.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40	10.08	9.65	11.86	11.93
	기타	1.92	1.90	3.16	1.63	3.50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음으로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1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3%)였다. 2019년과 비교 남성 장애인인 '도매 및 소매업'에서 고용률 변화가 가장 컸고(3.0%p 감소), 여성 장애인인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에서 고용률 변화가 가장 컸다(4.6%p 증가).

### 3. 남녀 장애인 고용 격차 및 격차 요인

오하카-블라인더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고용 격차 및 요인을 살펴보았다. 오하카-블라인더 분해분석은 집단 간 격차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통계기법으로, 집단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크게 ① 특성효과와 ② 구조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이다(Blinder, 1973; Oaxaca 1973). 특성효과는 개인의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학력 등이 높아서 발생하는 격차로, 일반적으로 생산성 차이에 기반한 격차 또는 '설명되는 격차(explained gap)'로 해석된다. 반면, 구조효과는 학력과 같은 특성 차이를 제외한 후에도 발생하는 격차로, 차별에 의한 격차 또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unexplained gap)'로 해석된다.

2017~2019년<sup>5)</sup> 남녀 평균 고용률 격차는 24.5%p였고, 그중 특성효과로 인한 격차는 21.8%p, 구조효과로 인한 격차는 2.7%p였다. 한편, 2020~2021년 남녀 평균 고용률 격차는 21.5%p였고, 그 중 특성효

과로 인한 격차는 19.9%p, 구조효과로 인한 격차는 1.6%p였다. 코로나19 이후 특성효과로 인한 격차 비중은 89%(=21.8/24.5)에서 93%(=19.9/21.5)로 증가한 반면, 차별적 구조효과 비중은 반대로 11%(=2.7/24.5)에서 7%(=1.6/21.5)로 감소하였다.

특성효과 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2019년 그리고 2020~2021년 모두 특성효과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만약 남녀 장애인 연령이 같았다면 2017~2019년에는 남녀 고용률 격차가 9.3%p(=-0.0924+0.1855), 2020~2021년에는 9.1%p(=-0.0637+0.15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균 연령은 약 60대 초반으로 남성 장애인 평균 연령이 여성 장애인 평균 연령 보다 낮다.<sup>6)</sup> 이러한 결과는 남녀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장노년층 여성 장애인의 고용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령 다음으로 남녀 고용률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로, 만약 2017~2019년 여성과 남성의 가구주 비율<sup>7)</sup>이 동일했다면 남녀 고용률 격차가 9.2%p 그리고 2020~2021년에는 7.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2017~2019년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2020~2021년 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두 시점의 고용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를 결합한 이유는 특정 연도 기간 효과(period effect)를 배제하고, 코로나19 전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연도보다는 기간을 결합하는 것이 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6) 자세한 내용은 김은정(2022).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실태 변화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이지 33, <표 III-10>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남성 장애인 가구주 비율이 여성 장애인 가구주 비율보다 높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정(2022).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실태 변화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이지 33, <표 III-10>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7〉 오하카-블라인더 남녀 장애인 고용률 분해분석

		2017~2019년 (N=31,542)	2020~2021년 (N=21,198)
총 격차 분해	남성 고용률 <sup>3)</sup>	0.4673 (0.006)	0.4480 (0.007)
	여성 고용률 <sup>3)</sup>	0.2221 (0.006)	0.2333 (0.008)
	총격차 (남성 고용률 - 여성 고용률)	0.2452 (0.009)***	0.2147 (0.010)***
	특성효과 (설명되는 격차)	0.2177 (0.006)***	0.1993 (0.007)***
	구조효과 (설명되지 않는 격차)	0.0274 (0.007)***	0.0155 (0.008)*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연령	-0.0924 (0.010)***	-0.0637 (0.011)***
	연령 제곱	0.1855 (0.013)***	0.1546 (0.014)***
	배우자 (ref. 없음)	0.0251 (0.002)***	0.0289 (0.003)***
	가구주 (ref. 비가구주)	0.0916 (0.005)***	0.0722 (0.005)***
	가구원 수	0.0059 (0.001)***	0.0077 (0.001)***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ref. 기타 시도)	-0.0020 (0.001)**	-0.0021 (0.001)*
	교육 (ref. 중졸 이하)		
	고졸	0.0038 (0.002)*	0.0006 (0.002)
	전문대졸 이상	0.0036 (0.001)**	0.0060 (0.002)**
	중증 (ref. 경증)	-0.0032 (0.002)*	-0.0048 (0.002)**
	정신장애 (ref. 신체장애)	-0.0001 (1.011e-3)	-0.0001 (2.163e-3)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사례수는 실제 관측치이고 분석은 가중치 적용값임.  
 2)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함. 100을 곱하면 고용률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3) 결측치로 인해 〈표 1〉에서 연도를 평균한 값과 다소 차이가 있음.  
 4) \* p<0.05, \*\*p<0.01, \*\*\*p<0.001

### Ⅲ. 코로나19 전후 임금 변화

10.50천 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 1. 남녀 장애인 임금 추이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2020년 실질임금 기준)<sup>8)</sup>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은 2019년 이후 임금이 미세하지만 증가한 반면, 여성 장애인은 감소하였다 남성 장애인 시간당 임금은 2019년 14.63천 원, 2020년 14.88천 원, 2021년 14.86천 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한데 반해, 여성 장애인 시간당 임금은 2019년 11.53천 원, 2020년은 10.41천 원, 2021년에는

〈표 8〉 2017~2021년 남녀 장애인 시간당 임금<sup>2)</sup> 변화

(단위: 천원, 2020년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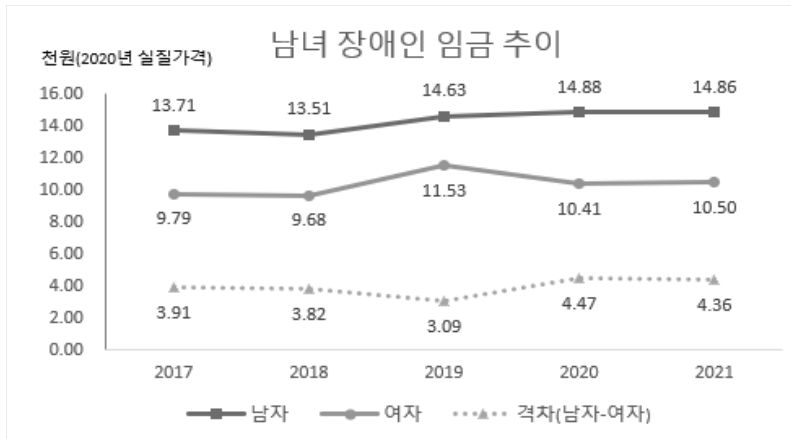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2.64	12.48	13.80	13.53	13.58
남자	13.71	13.51	14.63	14.88	14.86
여자	9.79	9.68	11.53	10.41	10.50
격차(남자-여자)	3.91	3.82	3.09	4.47	4.36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2) 월 총근로시간에서 월 평균 임금을 나눔.

장애 정도에 따른 남녀 장애인 임금 변화를 살펴

8)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202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그림 2〉 2017~2021년 남녀 장애인 임금 추이

본 결과,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남녀 장애인 모두 2019년 이후 2020년, 2021년 임금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 장애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임금이 증가했지만, 2021년

에 2019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임금이 감소하였다(〈표 9〉 참조). 장애 유형에 따른 남녀 장애인 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 신체 장애인은 2019년 대비

〈표 9〉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른 남녀 장애인 임금 변화

(단위: 천원, 2020년 실질가격)

유형		성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 정도	중증	전체	9.06	9.91	10.12	10.80	12.11
		남자	9.63	10.38	10.22	11.15	12.61
		여자	7.85	8.99	9.87	9.93	10.92
		격차(남자-여자)	1.78	1.38	0.35	1.22	1.69
	경증	전체	13.43	13.15	14.72	14.21	4.00
		남자	14.54	14.23	15.68	15.82	15.49
		여자	10.32	9.93	11.98	10.52	10.38
		격차(남자-여자)	4.22	4.31	3.70	5.31	5.11
장애 유형	신체	전체	13.12	13.00	14.44	14.01	14.04
		남자	14.21	14.04	15.32	15.50	15.42
		여자	10.15	10.08	11.96	10.65	10.70
		격차(남자-여자)	4.06	3.96	3.36	4.85	4.72
	정신	전체	6.83	7.31	7.95	8.43	9.55
		남자	7.27	7.60	7.85	8.74	9.89
		여자	5.81	6.76	8.17	7.58	8.74
		격차(남자-여자)	1.46	0.84	-0.32	1.16	1.15

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2020년 임금이 증가하고 2021년에 살짝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9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신체 장애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임금이 감소하고 2021년 살짝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2019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임금이 증가하였고, 여성 장애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하지만, 2021년에 2019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 2. 남녀 장애인 임금 실태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임금근로자 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 실태를 보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남성 장애인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05천 원, 여성 장애인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2.98천 원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 장애인 시간당 임금은 12.97천 원, 여성 장애인 시간당 임금은 9.97천 원이었다. 2019년 대비 정규직의 경우 남녀 모두 임금이 증가한 반면(남성: 1.1%증가, 여성: 2.9% 증가),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 장애인은 임금이 12.5% 크게 증가한 반면, 여성 장애인은 반대로 11.9%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남녀 장애인 임금근로자 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임금이 높았다. 2021년 중졸 이하 남성 장애인 임금근로자 임금은 11.96천 원, 고졸은 13.14천 원,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은 19.05천 원이었다. 한편, 여성은 중졸 이하 8.82천 원, 고졸은 11.24천 원,

〈표 10〉 종사상 지위에 따른 시간당 임금<sup>2)</sup> 실태  
(정규직 vs 비정규직)

(단위: 천원, 2020년 실질가격)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정규직	15.37	15.76	17.28	17.28	17.22
	비정규직	10.78	10.25	11.45	11.12	11.91
남자	정규직	16.05	16.61	17.85	18.25	18.05
	비정규직	11.82	10.93	11.53	11.89	12.97
여자	정규직	12.64	11.85	12.61	12.19	12.98
	비정규직	8.60	8.91	11.32	9.94	9.97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함.

2) 월 총근로시간에서 월 평균 임금을 나눔.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은 13.70천 원이었다. 2019년 대비 중졸 이하 남성 근로자는 임금이 7.3% 증가, 고졸 근로자는 4.4% 감소,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는 0.2%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중졸 이하는 13.5% 감소, 고졸 근로자는 12.5% 증가, 전문대졸 이상은 임금이 28.3% 감소하였다.

〈표 11〉 학력에 따른 시간당 임금<sup>2)</sup> 실태

(단위: 천원, 2020년 실질가격)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중졸이하	9.64	9.78	10.76	10.24	10.51
	고졸	12.10	11.62	12.90	12.63	12.71
	전문대졸 이상	17.92	17.47	19.03	19.40	18.00
남자	중졸이하	10.82	10.60	11.15	11.38	11.96
	고졸	12.68	12.36	13.74	13.16	13.14
	전문대졸 이상	18.85	18.20	19.01	20.67	19.05
여자	중졸이하	7.73	8.45	10.20	9.02	8.82
	고졸	9.71	9.18	9.99	10.55	11.24
	전문대졸 이상	14.88	14.19	19.11	14.56	13.70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함.

2) 월 총근로시간에서 월 평균 임금을 나눔.

〈표 12〉 사업 규모에 따른 시간당 임금<sup>2)</sup> 실태  
(단위: 천원, 2020년 실질가액)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4인	11.61	10.37	11.12	11.62	12.30
	5~9인	11.17	11.92	13.03	12.40	11.84
	10~29인	11.84	11.98	13.20	12.56	13.07
	30~49인	13.04	12.33	3.23	13.85	14.35
	50~99인	13.99	15.06	17.82	14.38	15.77
	100인 이상	19.70	17.30	20.28	21.41	19.92
남자	1~4인	13.23	11.27	11.16	12.18	13.09
	5~9인	12.19	12.37	14.41	13.16	12.78
	10~29인	12.27	12.82	14.09	13.89	14.40
	30~49인	13.93	14.39	13.55	14.89	15.51
	50~99인	15.50	16.54	18.27	16.58	17.42
	100인 이상	20.70	18.32	21.45	23.25	21.47
여자	1~4인	7.79	7.72	11.01	10.38	10.83
	5~9인	8.25	10.31	9.33	10.32	9.54
	10~29인	10.73	10.04	10.44	10.13	9.91
	30~49인	10.88	8.87	12.29	10.56	10.81
	50~99인	8.63	11.54	16.87	9.59	11.82
	100인 이상	15.87	11.80	14.29	14.11	13.52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2) 월 총근로시간에서 월 평균 임금을 나눔.

사업 규모에 따른 남녀 장애인 임금근로자 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남녀 임금 격차도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1년 남성 장애인은 '1~4인' (17.3%), '10~29인' (2.2%), '30~49인' (14.5%), '100인 이상' (0.1%)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은 증가한 반면, '5~9인' (11.3%), '50~99인' (4.7%)에서는 임금이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 장애인의 경우 '5~9인' (2.3%)에서만 임금이 증가했고, 그 외 모든 곳에서 임금이 감소했다('1~4인': 1.6%, '10~29인': 5.1%, '30~49인': 12.0%, '50~99인': 29.9%, '100인 이상': 5.4% 감소). 특히, '50~99인' 사업체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29.9%로 매우 컸다.

근무사업체 유형에 따른 남녀 장애인 임금근로자 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없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사업체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남성 장애인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일자리(2.3% 감소)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체에서 임금이 증가하였다(직업재활시설: 18.2%, 정부 및 공공기관: 5.4%, 일반사업체: 4.4% 증가). 반면, 여성 장애인의 경우 일반사업체(0.6% 증가)에서 근무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사업체 유형에서 임금이 감소하였다(직업재활시설: 18.8%,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6.1%, 정부 및 공공기관: 26.9% 감소).

마지막으로, 산업 유형에 따른 남녀 장애인 임금근로자 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남녀 장애인 모두 '교육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다음으로 남성 장애인은 '제조업', 그리고 여성 장애인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2019년 대비 남성 장애인의 경우 '제조업'에서의 임금이 16.2% 증가하여 그 변화율이 제일 컸고, 그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는데, 임금이 반대로 14.7% 감소하였다. 그다음은 '농업·임업, 어업 및 광업'으로 임금이 12.6%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 장애인의 경우 '운수 및 창고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94.5% 증가하여 제일 컸으며, 그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64.3% 증가),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64.1% 증가) 순이었다. 한편, '교육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52.4%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근무 사업체 유형에 따른 시간당 임금<sup>2)</sup>실태

(단위: 천원, 2020년 실질가격)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6.93	4.47	6.44	5.55	6.79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8.53	9.05	9.50	8.49	9.22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16.33	14.21	19.55	16.36	18.74
	그 외 일반사업체	13.18	13.15	14.18	14.46	14.55
남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6.95	4.88	5.87	5.52	6.94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7.93	8.57	10.22	8.57	9.99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19.89	15.84	18.95	18.84	19.97
	그 외 일반사업체	14.06	14.02	14.93	15.42	15.59
여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6.89	3.78	7.86	5.62	6.38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9.08	9.45	9.00	8.42	8.45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11.80	10.35	21.07	11.49	15.40
	그 외 일반사업체	9.91	10.17	11.20	11.39	11.27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2) 월 총근로시간에서 월 평균 임금을 나눔.

〈표 14〉 산업에 따른 시간당 임금<sup>2)</sup>실태

(단위 : 천원, 2020년 실질가격)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7.45	4.53	8.72	11.02	10.58
	제조업	14.29	14.00	5.08	15.12	17.64
	건설업	15.91	14.12	16.28	17.39	15.34
	도매 및 소매업	11.08	12.24	14.56	13.99	11.79
	운수 및 창고업	15.71	11.98	12.56	13.12	13.89
	숙박 및 음식점업	8.47	9.62	10.11	9.33	12.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17	10.39	11.38	11.56	11.6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39	12.41	12.44	11.97	11.77
	교육서비스업	16.00	15.57	21.63	14.64	16.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7	9.02	10.23	9.39	10.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47	15.02	15.64	17.18	14.63
	기타	11.14	12.20	14.69	14.73	15.75
남자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8.38	5.10	8.96	11.38	10.09
	제조업	15.30	15.15	15.77	15.93	18.33
	건설업	16.02	14.18	16.35	17.69	15.41
	도매 및 소매업	11.94	13.01	13.70	15.09	12.6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 자	운수 및 창고업	16.11	11.95	13.07	13.21	13.86
	숙박 및 음식점업	9.641	9.80	11.70	8.81	9.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39	11.09	11.69	11.80	12.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87	14.58	14.24	14.53	13.63
	교육서비스업	19.28	17.62	18.59	15.46	18.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89	8.92	10.89	9.49	10.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25	15.84	16.50	18.52	15.83
	기타	12.43	13.38	16.67	17.02	18.68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5.02	3.99	6.75	8.47	11.08
	제조업	9.67	8.83	9.59	10.50	11.11
	건설업	11.04	9.47	12.62	8.99	14.00
	도매 및 소매업	8.30	9.67	17.08	10.73	10.32
	운수 및 창고업	6.64	13.27	7.61	12.20	14.80
	숙박 및 음식점업	7.44	9.45	8.65	9.76	14.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57	8.59	10.58	11.03	9.58
남 성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44	8.41	9.55	9.38	9.18
	교육서비스업	11.86	13.93	26.37	12.62	12.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39	9.13	9.70	9.30	9.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72	12.35	12.07	13.72	10.95
	기타	8.08	7.22	9.55	7.49	11.48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가중치 적용값임.  
2) 월 총근로시간에서 월 평균 임금을 나눔.

### 3. 남녀 장애인 임금 격차 및 격차 요인

2019년 대비 2021년<sup>9)</sup> 남녀 장애인 임금 격차 및 격차 요인을 살펴보면, 2019년 남녀 평균 로그<sup>10)</sup> 시간당 임금 격차는 0.268, 그리고 2021년에는 0.288로, 남성이 여성보다 2019년에는 평균

30.7%(=exp(0.268)-1), 2021년에는 평균 33.3%(=exp(0.288)-1)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았다.<sup>11)</sup>

2019년 남녀 로그 임금 격차 중 특성효과에 의한 격차는 0.261, 구조효과에 의한 격차는 0.007였다. 2021년 남녀 로그 임금 격차 중 특성효과에 의한 격차는 0.204, 구조효과에 의한 격차는 0.084로,

9) 고용 격차 분해와는 다르게 임금은 연도를 결합하지 않고 2019년과 2021년 2개 연도만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가 시행되면서 남녀 임금 격차 동향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따라서, 제도의 영향 이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1년을 비교하였다.

10) 오하가-블라인더 분해분석에는 시간당 임금을 자연로그 취해서 분석하였다.

11) 로그 임금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예로, 2019년 실제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 임금을 지수 변환(exponential)하면 됨. 2019년 남녀 임금을 지수 변환하면 각각 12.69천 원(남성 장애인), 9.71천 원(여성 장애인)이다. 한편, 2019년 남성과 여성 로그 임금 격차는 0.268인데, 이를 지수 변환하면 1.307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비(=12.69/9.71)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당 임금이 30.7% 더 높았다고 해석한다.

코로나19 이후 특성효과에 의한 격차는 줄어들고, 차별적 구조효과에 의한 격차는 증가하였다. 총 격차에서 구조효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후 2%(=0.007/0.268)에서 29%(=0.084/0.288)로 급

격히 증가하였다.<sup>12)</sup>

각 요인별 세부 영향을 살펴보면, 2019년 그리고 2021년 모두 연령이 남녀 임금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남성 장애인과

〈표 15〉 오하카-블라인더 남녀 장애인 로그 시간당 임금 분해분석

		2019 (N=2,248)	2021(N=2,296)
총 격차 분해	남성 로그 시간당 임금	2.5410 (0.022)	2.5474 (0.022)
	여성 로그 시간당 임금	2.2731 (0.037)	2.2597 (0.024)
	총격차 (남성 - 여성) <sup>2)</sup>	0.2679 (0.043)***	0.2877 (0.032)***
	특성 효과 (설명되는 격차)	0.2614 (0.037)***	0.2041 (0.029)***
	구조 효과 (설명되지 않는 격차)	0.0065 (0.039)	0.0836 (0.034)*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연령	-0.1222 (0.048)*	-0.0668 (0.035)
	연령 제곱	0.1912 (0.061)**	0.1123 (0.042)**
	배우자 (ref. 없음)	0.0137 (0.007)*	0.0260 (0.008)**
	가구주 (ref. 비가구주)	0.0587 (0.021)**	0.0230 (0.015)
	가구원 수	0.0081 (0.005)	0.0018 (0.005)
	정규직 (ref. 비정규직)	0.0377 (0.012)**	0.0263 (0.008)**
	전일제 (ref. 시간제)	-0.0308 (0.019)	-0.0246 (0.012)*
	해당직장 근속기간(개월)	0.0465 (0.011)***	0.0306 (0.009)**
	일반 사업체 <sup>3)</sup> (ref. 직업재활시설, 정부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체, 정부 및 공공기관)	0.0125 (0.010)	0.0276 (0.0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 <sup>4)</sup> (ref. 그 외 산업)	-0.0034 (0.003)	-0.0045 (0.004)
	교육 (ref. 중졸 이하)		
	고졸	0.0003 (0.004)	0.0062 (0.006)
	전문대졸 이상	0.0291 (0.010)*	0.0359 (0.011)**
	사업체 규모 (ref. 9인 이하)		
	10~49인	0.0024 (0.003)	0.001 (0.002)
	50~99인	-0.0039 (0.005)	-0.0004 (0.003)
	100인 이상	0.0105 (0.005)*	0.0097 (0.005)*
	중증 (ref. 경증)	0.0038 (0.004)	0.0003 (0.002)
	정신장애 (ref. 신체장애)	0.0071 (0.006)	-0.0003 (0.005)

주: 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사례수는 실제 관측치이고 분석은 가중치 적용값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결측치로 인해 〈표 8〉 임금 격차 값과 다소 차이가 있음.

3) 준거 사업체인 직업재활시설, 정부재정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그 외 일반사업체

4)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준거 집단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및 그 외 산업으로 나눔.

5) \* p<0.05, \*\*p<0.01, \*\*\*p<0.001

12)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헵크만(heckman)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선택편의 유의성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 선택편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의 평균 연령<sup>13)</sup>이 같았다면, 로그 시간당 임금 격차가 2019년에는  $0.069p(=-0.1222+0.1912)$  그리고 2021년에는  $0.046p(=-0.0668+0.11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다음으로 남녀 임금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19년에는 가구주로 만약 남녀 장애인 가구주 비율이 같았다면 로그 임금 격차가  $0.05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에 연령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력으로,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평균 학력이 더 높는데,<sup>14)</sup> 만약 남녀 장애인의 학력 특성이 같았다면 남녀 임금 격차가  $0.042p(=0.0062+0.03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끝맺으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남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일반사업체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로 일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은 정부 지원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는 비중이 높기에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코로나19 불황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이후 남녀 고용률 격차 역시 감소했고, 오히려-블라인더 분해분석 결과 차별적 구조효과에 의한 격차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감소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시장 근무 비중이 높은 남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로 남성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와 더불어 구조적 차별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의 경우 반대로 코로나19 이후 남성 장애인의 시간당 임금은 증가한 반면 여성 장애인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이 11.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남녀 임금 격차가 증가했는데, 오히려-블라인더 분해분석 결과, 특히 2019년 대비 2021년 차별적 구조효과 격차 비중이 2%에서 29%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금 시장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발견을 토대로 남녀 장애인 고용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코로나19 이후 남녀 고용률 격차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이에, 여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여성 장애인 고용률 가산 제도, 여성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컨설팅 및 창업 비용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국내 여성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은 대부분 고용지원 정책들로 임금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은 없다. 이에 고용에서

13) 남성 임금근로자 평균 연령이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어리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정(2022).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실태 변화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이지 53, <표 IV-9>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세한 내용은 김은정(2022).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실태 변화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페이지 53, <표 IV-9>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격차뿐 아니라 임금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남녀 장애인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중요한데, 여성 장애인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 평생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참고문헌 •

- Blinder, A. S.(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436-455.
- Oaxaca, R. L.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709.

#### 〈인터넷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자료 인출  
<https://edi.kead.or.kr/BoardType17.do?bid=35&mid=219> (2022. 9.15. 접속)
- 통계청 (2022). 장애인경제활동상태-성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 (2022.11.22. 접속)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A%B3%A0%EC%9A%A9%EC%B4%89%EC%A7%84%EB%B0%8F%EC%A7%81%EC%97%85%EC%9E%AC%ED%99%9C%EB%B2%95> (2022.11.22. 접속)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c).. 「장애인복지법」.  
<https://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2022.11.22. 접속)